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탈출 32,7-11,13-14
[화답송] 시편 51(50),3-4,12-13,17과 19 (◎ 루카 15,18 참조)
 ◎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누우치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은 업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
[제 2독서] 1티모 1,12-17
[복음 환호송] 2코린 5,19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복음] 루카 15,1-32 또는 15,1-10

성가	8시 미사	입당 423	봉헌 463 468	성체 163 165	파견 16
	11시 미사	입당 423	봉헌 463 468	성체 163 165	파견 16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 24주일(9월 15일)		한국순교자대축일(9월 22일)		연중 제 26주일(9월 29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바로로(명국)	전베로니카(진영)	임루카(승원)	이엘리사벳(자영)	정스텔라(애리)	권미카엘(창모)
제 1 독서	강요한(신호)	허라우렌시오(순구)	최분도(환준)	최다니엘(대연)	김안드레아(찬곤)	구미카엘(창희)
제 2 독서	김안젤라(영선)	허파비올라(옥진)	최분다(수영)	김말가리타(미숙)	김글라라(순희)	김테레사(승희)

보편지향기도

오늘의 강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공통적으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1독서인 탈출기에서는 모세가 십계판을 받으러 시나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수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뺏뺏한 백성이다.**” (탈출32,9)라고 하시며,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지만 모세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재앙을 거두시는 자비하신 하느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디모1.13)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죄인이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개하여 새롭게 살기를 바라시는 자비하신 분이시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는 하느님 앞에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우리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혹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언제나 회개하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느님께서는 무한히 넓은 사랑을 가진 분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복음에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루카15,2)이라고 투덜거리며 불평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되찾은 양의 비유’ ‘되찾은 은전의 비유’ 그리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 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끝에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루카15,7)라고 전하며, 이어서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끝에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루카15,10)고 밝히고 있으며,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루카15,32)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비유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하느님은 자비하신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

“나는 소중하니까”

커다란 식물원에서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머리를 우아하게 쓰다듬으며 푸른 나무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헤어제품을 쓰면서 변화된 자신의 모발에 대해 더할 수 없는 만족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는 소중하니까” (Because I'm worth it)라고 말합니다.

이 간결한 문구는 상품광고의 차원을 넘어서 그동안 평가절하되어 온 여성의 자의식과 여성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에 엄청난변화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되찾은 양, 되찾은 은전, 되찾은 아들의 비유로 매우 짜임새 있게 구성된 오늘의 복음이,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도입부분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세리나 죄인들과 교류하고 소통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들은 세상이나 인간의 변화에 대해 거부하면서, 세리나 죄인들은 격리된 채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세리나 죄인들도 소중하며, 이들이 변화하고 회개하여 모든 이들이 당신 품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과는 사뭇 다른 하느님의 뜻을 헤아려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는 것이 어찌면 오늘날 우리들이 지고야야 할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양 백 마리를 가진 남자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은전 열 닢을 가진 여자가 사라진 한 닢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집습니다. 되찾은 은전의 비유에서는 하느님의 마음을 여성의 이야기로 풀어 가는데, 남성 중심 사회였던 당시로써는 매우 파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지난 사순 제4주일에 이미 봉독되었기에 올해 두 번이나 듣게 되는 셈인데, 그 메시지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소중한 것을 되찾은 기쁨입니다.

남자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기어이 찾아내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루카 15,5) 돌아 와서는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져” (루카 15,8 참조) 찾아내고는 그 기쁨을 친구와 이웃들과 나눕니다.

마지막 비유는 더욱 극적입니다.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으니, 이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0

어 돌아오자 먼저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루카 15,20 참조) 반지와 신발을 신겨줍니다.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입니다.(루카 15,32 참조)

아버지는 이 작은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벌여 기쁨을 표현합니다. 길 잃은 양, 사라져 버린 은전, 집 떠난 아들은 누구 일까요? 아무 죄도 없으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수난을 겪으시고 치욕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소중하니까!

김영국 요셉 신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
제가 다른 이를 용서할 때 온유한 마음을
다른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
겸손한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글_이해인 수녀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겨자씨의 비밀 2

겨자씨의 비밀을 발견한 것은 최근에 우연히 「성녀 소화 데레사 자서전」을 다시 읽은 후였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책은 읽을 때마다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지 지금껏 수 차례 읽었음에도 새로운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소화 데레사는 널리 알려진 대로 15살에 가르멜수도회에 들어가 24살에 선종함으로써 10년도 못 되는 짧은 수도원생활을 한 새내기 성녀입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대부분 그러하였듯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새로운 수도회를 창립하거나 순교를 하거나 성덕을 이루기 위해서 초인적인 신앙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봉쇄수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마룻바닥을 닦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과 같은 평범한 일상생활에 전념하였던 수도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성녀가 되기를 꿈꾸었던 데레사는 ‘구름을 찌르는 높은 산’과 같은 성인들에게 비하면 사람들의 발아래 짓밟히는 ‘작은 모래알’과 같은 자신의 무능함에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데레사는 ‘하느님께서 이루지 못할 원을 내게 일으키게 하진 못하실 것이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성서를 찾아보았을 때 이 구절이 눈에 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서에는 ‘누가 만일 아주 작은 자이거든 내게로 오라’ (잠언 9,4)고 하시는 ‘영원한 지혜’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녀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순수한 사랑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행동이 하느님의 눈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다른 사업을 모두 한데 모은 것보다도 교회에 유익하다.” (영혼의 노래)라는 말에 용기를 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일’이냐말로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소소하고 그러니까 마룻바닥에 떨어져 있는 바늘 하나를 주울 때에도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주우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영혼 하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조그만 희생 하나, 눈길 한 가닥,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아주 작은 것도 이용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성인의 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녀 소화 데레사가 발견한 ‘겨자씨’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베드로의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한 말’ (루카 9,33)처럼 ‘스스로 나팔부는 위선’ (마태6,2 참조)이거나 ‘되풀이 되는 빈말’ (마태 6,7 참조)일 때가 많습니다.

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46년이나 걸린 솔로몬의 거대한 성전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성전)을 아끼는 사랑의 열정’ (요한 2,17 참조)입니다. 주님은 심지어 돈과 권력과 궤변으로 얼룩진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질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은 우리들의 수도원인 가정 속에서부터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 겨자씨와 같은 작은 희생과 헌신과 양보와 인내들이 불꽃처럼 부딪치는 울코트 프레싱의 격전장입니다. 소화 데레사는 이 ‘작은 길’을 끝까지 달려가 작은 모래알이 되어 자신이 원했던 대로 ‘목숨이 다하는 날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서 우리들에게 ‘장미의 꽃비’를 뿌리는 가톨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소화 데레사는 말했습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이층에 간 어머니를 찾아 우는 아기처럼 하면 된다.’ 우는 아기 데레사가 성녀가 되었다면 감히 우리도 성덕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 때도 데레사처럼 사랑으로 하고, 자식들을 아기 예수처럼 대하고, 아내를 성모님처럼 공경하고, 남편을 주님을 대하듯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성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만권을 읽은 책의 내용이 겨자씨와 같은 이발(李勃)의 머릿속에 깃들 수 있듯이 이러한 겨자씨의 믿음이야말로 수미산을 움직이고, 새들이 날아와 동지를 틀 수 있는 거대한 숲을 이루는 하늘나라의 열쇠인 것입니다.

최인호 베드로 | 작가

머무름

새로운 생명을 지원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계획들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기 아버지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도 아기를 낳아 기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머니들에게 특히 다가가야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87항

가톨릭전례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복음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기본 적이 없는 먼 길을 떠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지도입니다. 우리는 지도를 펼치고 가야할 길을 찾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과 함께 사는 영원한 행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잘못된 자유의 남용으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길에서 벗어나 미로로, 습지로 빠져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이집트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내려갑니다. 편안한 시절은 빨리 지나가고 암흑의 종살이가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에 하느님의 위대한 구원의 손길이 뻗치고, 마침내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이스라엘은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 앞에 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탈출 13,21)

하느님께서 함께 하기에 이스라엘은 노예의 땅 이집트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의 길을 잃을 염려는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육체적 노예에서 벗어나 공간적인 자유를 확보한 이스라엘을 통해 온 인류에게 영적인 자유를 위한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의 종살이를 하지 않고 진정한 해방을 누리기 위한 조건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전해진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느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이라는 선물은 바로 하느님 자신과 당신의 거룩한 뜻을 주신 것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2059항) 하지만 인간은 하느님께서 직접 써주신 계명을 지키는 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는 것과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마태 22,36-40 참조)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구약의 법과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알파이고 오메가이신 하느님의 계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서는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돌 판에 새겨 주신 하느님이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계명을 쓰신 분은 한 분이시고, 사랑은 모

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서해 바다를 향해 흐르는 한강은 오천 년 이상 단 한 번도 백두대간을 거슬러 흐른 적이 없습니다. 시대가 흘러 문명이 발달하고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의 심성을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아가도록 십계명을 삶의 지도로 주셨습니다. 시나이 산의 십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십계명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2072항)

우리 마음에 새겨졌으나 잊혀져간 십계명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불어넣어줍니다. 십계명과 복음은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라. 네가 살리라. 내 가르침을 네 눈동자처럼 지켜라.” (잠언 7,2)

※ 참고: 「가톨릭교회교리서」 2052-2082항

사목국 연구실

** 가톨릭 교리 상식

< 교무금 >

1. 유래

- 아브라함 :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멜키체덱에게 줌 (창세 14,21)
- 야곱 :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창세 28,22)
- 신명기 14,22-29 : 십일조를 규정하고 있음
- 민수기 : 당시 사제였던 레위인들의 생활수단이었음

2. 책정과 사용

- 가정을 단위로 분량이 책정됨
- 각 본당에서 교구로 전달, 교회유지와 교회사업을 위해 사용

3. 십일조의 의미

- 인간의 모든 소유가 하느님께 속한다는 것을 의미
- 하느님 제단에 바치는 선물
- 하느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예물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90	219	45	354
헌 금	\$588	\$1,322	\$73	\$1,983

< 교무금 > \$4,210

최옥경(7-9) 김승희(9-10) 심연자(6-9) 석흥기(4-5)
정병구(9-10) 염명련(8-9) 남금지(9) 명광식(1-10)
황정희(9) 소명환(9-10) 임승원(8-9) 정애리(9)
이병열(9) 김정복(9) 전문자(9) 김옥녀(9)
신진남(1-12) 이규현(9) 이건용(9) 임윤택(9)
이선희(9) 최윤기(9) 박영실(9-10)

< 성소후원금 > \$160

정병구(9-10) 소명환(9-10) 김정복(9) 임윤택(9)
이선희(7-8) 최윤기(9) 박영실(9-10)

< Bishop's Appeal > \$80

정창희(9-12) 박영실(9-10)

< 감사헌금 > 버클리미사 \$100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55,550

* 총 납입 \$54,950

- 지난 주 봉헌 : 뜨락회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515.28(186 세대 약정)

* 봉헌액 \$292,045.28

날짜	연	지 향	봉 헌 자
9월 15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연	유주호	가족
	연	정요셉/서데레사	정베드로
	연	김마리데레사	김아네스(순이)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생	유클레어	유안셀모(병욱)
	생	신미카엘라	신엘리사벳
9월 17일 화	연	최베드로(휘중)	가족
	연	유주호	가족
	생	김케넷(관용)	김엘리사벳
	생	유요셉/마리아 가정	정분다
9월 18일 수	연	부모님	이바오로
	연	유주호	가족
	생	박스텔라/강에스텔/김글로리아/조에스텔	전교부
9월 19일 목	연	유주호	가족
	연	김요한/홍모니카	정분다
9월 20일 금	연	형제/자매	이바오로
	연	유주호	가족
	생	한수산나(서연)	익명
9월 21일 토	연	이베로니카	자녀들
	생	이마태오(영기) 축일	박세레나
	생	김마태오(승한) 축일	김데레사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제 사 양 -

◆ 알는 이들을 위한 기도 : 오늘 미사 중

◆ 2차 헌금

9월 15일(오늘) Holy Father를 위한 헌금

◆ 오클랜드 성 김대건 천주교회 장학금 수여식

일시 : 9월 22일(다음주) 교중미사 중

대학생 부문 수혜자 : 심혜란 에스텔, 이가은 모니카

고등학생 부문 수혜자 : 이승혜 마리아,

임호영 대건안드레아, 정송이 비비안나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뜨개질사랑회 : 9월 15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평협회의 : 9월 22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사목회의 : 9월 29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본당 창립 29주년 기념 및 장학 기금 모금 골프대회

일시 : 10월 5일(토) 오후 1시

장소 : Metropolitan Golf Links(Oakland)

참가비 : 남성 \$100, 여성 \$80

- 그린피, 카트비, 기념품 및 저녁식사 포함

문의 : 육승주 아오스딩 510-909-6626

◆ 성장세미나(자비로우신 하느님 : 회복여정)

일시 : 10월 25일(금) - 27일(일)

장소 : Jesuit Retreat Center of Los Altos

주제 :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에페 4,23)

강사 : 김태광 아오스딩 신부(팔로티화-천주교 사도직회)

참가비 : \$260.00

대상 : 각 본당 성령기도회원 및 관심 있는 교우

신청 및 문의 : 성령기도회장 510-684-7207

9월 구역모임		콜로세서 1-2장
1 구역	9월28일(토) 6시	최명숙 매들린 덕
2 구역	9월29일(일)6시반	정일양 안드레아 덕
4 구역	9월21일(토)6시반	이주황 요한 덕
5 구역	9월29일(일)	야외소풍 겸 구역회
6 구역	9월20일(금) 6시	김원덕 시몬 덕
7-1구역	9월28일(토) 2시	파운더스홀
7-2구역	9월28일(토) 6시	채성일 토마스 덕
8-1구역	9월29일(일) 5시	팽현팔 하비에르 덕
8-2구역	9월22일(일) 6시	UC Village Cross Rd. Room
9 구역	9월21일(토) 6시	노용례 소피아 덕
10 구역	9월22일(일) 5시	이건용 요셉 덕

◆ 19차 성령대회 강의 CD 예약 및 판매(CD 3장 \$15)

예약 : 천종욱 다니엘 510-684-7207

◆ 9월 Hair Cut 봉사는 둘째 주, 넷째 주입니다.

◆ 지난 주 새로 오신 분

8-2 구역 : 백하영 프란체스카 가정

◆ 오늘 친교실에서 오클랜드 교구 가톨릭 장례 및

묘지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소식

오늘 : 추석 합동미사(주일학교/영어미사 없음)

한국학교 소식

- 9월 21일 : 교내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 10월 5일 : 북가주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